

국가별 동향



미 국

‘씩은 알’ 품는 엄마 닭과 ‘푸아그라’ 용 아기오리가 한가족된 사연



알이 썩은 줄 모르고 계속 품고 있던 엄마 닭과 푸아그라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도망친 아기 오리가 한 가족이 된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미국 한 온라인매체를 통해 알려진

이 사연은 온라인 사진 공유 사이트 임거 (imgur)에 올라오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엄마 닭은 한 농장에서 계란이 썩은 줄 모르고 몇 달간 품고 있었다. 이때 주변 공장에서 탈출한 노란 아기 오리가 나타났다. 그 공장은 푸아그라의 재료가 되기 위해 억지로 사료를 먹이며 키우는 곳이었다. 이 내용을 온라인상에 알린 여성은 바로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오리가 그 곳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둘의 만남을 지켜봤다. 결국 서로 의지하게 된 엄마 닭과 아기 오리가 한 가족처럼 농장을 누비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조류인플루엔자로 닭고기 값 32%나 하락...계란 값은 상승

미국 중서부의 조류인플루엔자 창궐로 미국의 닭고기 값은 떨어지고 계란값은 올랐다. 미 농무부가 발표한 월간 가금동향에서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와 무관함에도 수입업자들이 이를 사지 않아 동북부에서 도매가가 전년 동기보다 32% 떨어졌으며 닭다리는 33% 하락했다고 말했다. 반면 계란 값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창궐하기 전보다 두 배나 올랐다가 최근 다소 하락했다. [뉴시스]



태 국

“예쁘니? 난 죽을것 같아”...염색한 병아리 봉지 넣어 파는 관광지



하트핑크색 병아리를 본 적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병아리는 개나리와 비슷한 옅은 노란색 털을 가졌지만, 이곳에서 ‘팔리는’ 병아리는 조금 다르다. 최근 태국에서는 아이들의 장난감용으로 염색된 병아리가 팔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코란타 섬(Koh Lanta island)에서는 트럭에 가득 실린 병아리들이 팔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이 병아리들의 몸 색깔이 핫핑크색, 진한 연두색, 진한 노란색 등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과, 엄연히 '살아있는 병아리' 들을 공기가 통하지 않는 비닐봉지에 넣어 놓고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란타 섬의 모래 해변 곳곳에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염색한 병아리를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이들은 공기도 통하지 않는 비닐봉지 안에 보관되기도 한다. 대부분은 아이들의 값싼 장난감으로 팔리고 있었다. [나우뉴스]

카도 같은 '좋은' 불포화지방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3개월 후 두 집단 모두 체중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콜레스테롤처럼 심혈관계 위험 인자에도 차이가 없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AJCN)'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호 주

계란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 불변

계란을 많이 먹더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시드니대학 보건연구소 연구진은 많은 계란을 먹어도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미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보도했다. 연구팀의 닉 풀러 박사는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에게조차 3개월 동안 한 주 6일씩 하루에 계란 2개를 먹게 했으나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풀러 박사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2형(성인) 당뇨 환자에게는 자칫 죽음을 부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연구팀은 140명을 2개 집단으로 나눠 한쪽에는 한 주 6일 동안 하루에 계란 2개 씩을, 다른 한쪽에는 한 주에 계란 2개 미만을 먹도록 했다. 또 모든 실험 참가자에게는 버터 같은 소위 '나쁜' 포화지방 대신 열대과일 아보



영 국

병아리 성 감별사는 '연봉 7천만 원, 그래도 하기 싫어'

영국에서 병아리 성 감별사는 고소득 직업이지만, 기피 업종이기도 하다. 영국 일간지 메트로가 연봉이 약 7,000만 원에 육박하지만, 적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직업을 소개했다. 이 직업의 명칭은 '병아리 성 감별사'이다. 갓 태어난 병아리의 생식기 부위를 확인하고 성을 감별하는 직업이다. 영국통계청에 따르면 영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2만 5,600파운드(약 4,450만 원)선이지만 '병아리 성 감별사'의 연봉은 4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6,700만 원 선이다.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직종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기피한다고 한다. 현지 양계업체는 병아리 성 감별사를 할 사람을 물색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병아리 성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3~5초 이내에 재빠르게 성별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손놀림과 '정확한 매의 눈'도 필수이다. 게다가 하루에 12시간 근무하면서 800~1,200마리의 성별을 감별해야 한다. 정확도는 97~98%에 달해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MBN] 양계